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업그룹 특성 연구

정유리*

국문초록

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으로 의료소비자 중심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5개이며, 올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15개 의료사협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산청의료사협도 이에 선정되어 2021년 10월 창립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청의료사협을 준비하는 창업그룹의 사회적기업가정신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경남산청의료사협의 창업그룹은 한의사가 중심이 되어 오랫동안 지역에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해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산청지역 복지와 돌봄의 공동체 형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목적에 공동체 정신을 추가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동체 정신을 특성으로 추가한 이유는 현 창업그룹이 산청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활동을 통해 형성된 견고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인터뷰를 통해 이들에게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동체 정신은 산청의료사협의 강력한 창업동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핵심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의료사협 탄생 과정 및 창업그룹 특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경남지역 최초의 의료사협인 경남산청의료사협 창립 과정을 기록하고, 의료사협 창업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적기업가정신 발현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어: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가정신, 창업그룹

*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daskind@hanmail.ne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Group of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in Gyeongnam Sancheong

Jung, You Lee**

Abstract

With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and the continuous COVID-19 pandemic, interest in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centered on medical consumers is increasing. Currently, there are 25 domestic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s, and this year the Korea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re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15 health cooperatives. Gyeongnam Sancheong Health Cooperation was selected as a part of their support project, and is preparing to start a business with the aim of founding in October 2021.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ntrepreneurship of the start-up group preparing for Sancheong Health Cooperative. The founding group of the Gyeongnam Sancheong Health Cooperative has been forming a civil society network in the region for a long time around oriental medicine doctor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community of welfare and care in the Sancheong area. This study took an additional exploration of not only innovation, proactiveness, risk-tasking, social mission but also sense of community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entrepreneurship. The reason for adding sense of community as a characteristic is that the current start-up group has a solid network formed through a number of activities targeting citizens in Sancheong area, and that it was revealed they have a strong bond to the local community through interviews. The sense of community worked as a strong motiv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Sancheong Health Cooperative. This study was added to the previous research and core group interviews while exploring also the process of birth of health cooperativ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rt-up group.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record the founding process of Gyeongnam Sancheong Health Cooperative, the first health cooperative in Gyeongnam area,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social entrepreneurship manifestation in the start-up period of health cooperative.

Key words: social cooperative association of health welfare in gyeongnam sancheong, social entrepreneurship, start-up group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Management of Co-operatives, Graduate School,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Korea, daskind@hanmail.net

I. 서론

2001년에 만들어진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는 무인도에 표류해 4년을 버티다 탈출하는 남자의 이야기다. 여기에 나오는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이 떠 내려온 배구공을 친구 삼아 지내는 모습이다. 아무런 생존 지식이 없던 주인공은 불을 피우고, 사냥을 하는 등 생존 기술을 하나하나 익혀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이 외로움이었고, 그는 배구공을 친구 삼아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인간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란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 생존의 기반이 되는 타인과의 관계는 사회라는 틀을 가진다. 사회(社會, society)는 정치, 문화, 제도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공통의 관심과 신념, 이해에 기반한 다인(多人)의 개인적 집합, 결사체로 정의된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이란 수사가 붙게 된다.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와 관계된 또는 그러한 것과 같은 성격을 띤’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 사회적이란 용어는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도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영리 기업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짧지만, 법 제정 이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충, 윤리적 시장 확산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양면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운영은 쉽지 않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경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회적기업과 같은 특수한 조직 형태를 가진 경우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가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이용탁, 2009). 사회적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전략 및 가치와 신념 체계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Dees, 1998; 이용탁, 2009; 배귀희, 2011).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을 키워드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검색한 결과 국내 학술 논문 3,539편이 검색되었다(2021.5.31). 시기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2020년까지로 바꿔 검색했더니 3,157편이 검색되어 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는 시기 구분 없이 57건이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업그룹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초기 창업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산청의료사협) 창립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개인이 아닌 그룹이지만 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창립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사회적기업가정신 연구에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창업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혼중 조직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을 줄이고 조직의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김수한, 2018).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청의료사협 준비위원회 중 핵심 그룹 5인을 인터뷰했고, 현재 안산의료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초기 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배귀희(2011) 논문을 참고하였다.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개념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더해 사회적 목적 추구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맞추어 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의 특성을 살펴보고, 여기에 공동체 정신이라는 특성을 추가하였다. 공동체 정신을 추가한 것은 산청의료사협 창업을 준비 중인 핵심 그룹은 산청지역에서 오랫동안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를 구성해 왔고, 이 네트워크가 창업의 강력한 동기와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정신을 산청의료사협만의 특성으로 규정하고, 기존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이 특성을 추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남지역 최초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될 산청의료사협의 창립은 상징적 의미가 크며, 현재 창립을 위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경남지역 최초의 의료사협 탄생 과정 및 창업그룹 특성을 탐색하고 기록함으로써 의료사협 창업그룹의 특성 및 사회적기업가정신이 발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의 개선 과제 해결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¹⁾ 사회적경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제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고용불안, 고령화 저출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

1) <http://m.s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

는 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사회적경제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Defourny(2008)는 사회적경제를 연대, 자율성, 그리고 시민성 위에 마련된 경제적 시도들에 기초한 연합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했고, 공통의 운영원리로 궁극적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운영의 자율성,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잉여 배분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대명(2007)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이 노동과 사회참여, 수익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 정리했다.²⁾ 2007년 당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양적 확대에 이어 질적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을 짚어보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뜻한다. 국가나 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②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③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④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³⁾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네 개의 기업형태로 나뉜다. 기업에 따라 근거 법령, 소관부서 등이 다르고 통합 관리 및 지원 법적 근거 등이 미미한 형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 및 사회적경제 영역이 힘을 모으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Alter(2007)는 비즈니스와 전통적인 비영리 단체가 교차하는 지점에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서부터 소득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제시했다.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점과 규정도 시대와 국가별로 다양하다.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의 민주성, 국가의 공공성, 시장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김수영, 2015).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다섯 유형으로 나뉘는데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 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 기업형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2019년 현재 사회적기업은 2,435개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처음으로 55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에 빠른 양적성장을 이룬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

2)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 한국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시민사회와NGO. Vol. 5 No. 2 (2007) 35-73. 논문참조

3)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

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단체와 민간 연구자들이 실업 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기업을 소개하였다. 200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등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와 고용 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3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델로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2007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개정했다.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출범했다.⁴⁾(다음백과, 2021)

<표 1> 4대 사회적경제기업

	근거법령	소관부서	정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2012)	기획재정부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
마을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2011)	행정안전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2021. 저자 정리>

2.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연계시켜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중적인 환경에 기반해 지속적 경영을 이루어가야 할 주체가 바로 사회적기업가다.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기업가에 대한 정의에서 기업가는 새로운 제품을 활용하거나 혹은 새로운 물품 혹은 서

4)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1s1058n9>

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관행을 개혁하거나 타파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Schumpeter, 1950). 사회적기업가는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며 혁신적이고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Dees et al., 2001)(배귀희 2011 재인용). 즉 사회적기업가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시장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며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영리적 기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이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금확보전략이나 경영구조를 모색하는 비영리조직의 이니셔티브(Austin, 2006)로 정의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인으로 혁신성(innovation), 위험감수성 (risk-taking) 혹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그리고 진취성(proactiveness)을 들고 있다(이용탁, 2009; Lumpkin & Dees, 1996; Phabhu, 1998; Sullivan Mort, et al., 2003; Voss, et al., 2005; Weerawardena & Sullivan Mort, 2006)(배귀희 2011 재인용). 혁신성은 현재 존재하는 기술의 새로운 결합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조직 활동의 확산을 통한 내부의 창조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서비스, 과정, 혹은 조직의 산출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Schumpeter, 1947; Lumpkin & Dees, 1996). 위험감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대안 등을 만들어 내거나 실행시키는 과정에 기여 시간, 형평성, 재정적 자원 등의 기준에 의한 인지된 위험을 기여이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Kuratko & Hodgetts, 2004). 진취성은 상대 조직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정책들을 수행하기 이전에 실행함으로써 미래에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Schumpeter, 1947; Lumpkin & Dees, 1996). 사회적기업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존의 제도적 규범 혹은 관념 등을 깨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진취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진취성을 가진 사회적기업가인 리더들은 변화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

이런 전통적인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새로운 요인들을 추가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배귀희(2011)는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사회적 목적 추구를 추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⁵⁾ 사회적 목적은 가장 분명하고도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적 기업가들이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목적에는 개인적 혹은 사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Peredo & McLean, 2006). 사회적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변혁적 성격을 가지며 일상적인 조직을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기업가 혹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사회적 목적은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하게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게 한다(Leadbeater, 1997).

장성희(2012)는 창업가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사회적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의 성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창업가의 성취욕구, 비전 설정 능력, 환경 불확실

5)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15(2), 2011. 논문 참조.

성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혜정, 김미리(2020)는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도덕적 책무, 자기효능감, 감성지능은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영리 추구 기업가정신과는 다르며, 이런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경제적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주요한 전략이 된다.

<표 2> 영리추구 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가정신 비교

영리추구 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가정신
개인적 지식과 기술의 강화	집합적 지혜를 통해 얻어짐
단기적, 재정적 수익에 초점-재무제표	장기적인 역량향상에 초점-사회적 목적달성
아이디어에 범주에 제한이 없음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목적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초점을 둠
수익(이익)창출이 목적-기회탐색, 평가, 확인	수익(이익)창출이 수단-사회적 가치 창출
이익이 미래의 수익창출을 위해 재투자	이익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됨

<출처: Thalhuber, 1998><기업가정신:이론과실천, 252p>

III.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분석틀

본 연구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창업그룹 특성에 대한 것이다. 이 창업그룹의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목적 추구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중요한 특성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체 정신’이라는 새로운 특성을 추가하고자 한다. 공동체 정신에 대한 개념은 McMillan과 Chavis의 공동체 정신(sense of community) 연구를 따르고자 한다. 이들은 공동체 정신에 대해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조직에 서로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이 함께 헌신함으로써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리라는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cMillan and Chavis, 1986: 9). 그들은 공동체 정신을 네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성원 자격(membership), 영향력(influence),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그리고 정서적 유대의 공유(shared emotional connection)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연대 의식, 조직에 대한 충성심,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착, 잦은 접촉,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 특히 욕구의 충족과 통합은 조직이 구성원 개인들의 욕구와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충족시킴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고 재강화시키는 요소로서 구성원들 간의 공정한 거래(fair

trade)가 요구된다(McMillan and Chavis, 1986: 12-13).

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고, 위에 기술한 공동체 정신이 상당 부분 발현되고 있다. 인터뷰와 사전 조사를 통해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자신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산청의료사협의 성공은 기존에 형성된 네트워크가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공동체 정신이라는 특성을 추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산청의료사협 준비위원회에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창업 핵심 그룹을 인터뷰하였다. 핵심 그룹인 산청의료사협 준비위원장, 산청의료사협 대표, 간사를 인터뷰했고, 산청모임 학습회에 참여해 일반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창원 모임에 참여하는 1명을 인터뷰하여 연대하는 경상남도민의 입장을 들었다. 또한 안산의료사협 의료진을 만나 의료사협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현재 의료사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창립을 앞둔 의료사협에게 필요한 조언과 준비사항 등을 듣고자 함이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로 정리하였다.

<표3> 산청의료사협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역할	나이 및 성별	인터뷰 방식
참여자A	준비위원장	64/남	대면
참여자B	대표	41/여	전화
참여자C	간사	48/남	대면
참여자D	산청모임 참여자	57/남	전화
참여자E	창원모임 참여자	51/여	대면
참여자F	안산의료사협 의료진	61/남	대면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설문지를 만들어 전달하였다. 인터뷰는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했고, 부득이한 경우는 전화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사전 양해를 구해 인터뷰를 녹음하였고, 인터뷰 후에 녹취록을 정리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경남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사회적 목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여기에 추가로 공동체 정신이라는 특성을 추가하여 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에게 이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의료사협을 창업하는 핵심 그룹의 특성을 정리하고,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창립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창립 때까지 과정을 기록하여 의료사협 창업의 역사로 보존하고자 한다.

IV. 의료사협에 대한 이해

1. 의료사협의 현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작은 언제인가. 법적인 자격을 부여받은 시기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이지만 보건의료 운동의 일환으로 의료사협에 대한 첫걸음을 뗀 것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 안성군 고삼면 가유리 주말진료소 활동을 시작한 마을 청년들과 연세대 기독교학생회 의료인들의 자발적인 각성에 기초해 스스로 의료를 책임지고자 1994년 4월 24일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인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이후 1996년에 인천평화의료생협, 2000년 안산의료생협, 2002년 원주의료생협과 대전민들레의료생협, 2004년 전주의료생협이 설립된다. 처음에는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활동하다가, 1999년 생협법 제정에 따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불리다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을 더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관련 법의 틈새를 악용한 일종의 ‘사무장병원’인 유사의료생협이 생겨나면서 이들과의 명확한 차이를 제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남춘호, 2020). 의료사협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조직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2012년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조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적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목적과 권한과 설립 및 영업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의료생협은 기존의 역할에 공적인 목적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재탄생하게 된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의료사협을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민주적 의료기관, 건강한 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복지 분야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여러 성격을 비교해보면, 의료사협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표4> 의료분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경제적 가치)	비영리법인(사회적 가치)
설립허가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또는 관련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잉여금의 30%

배당	배당 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고귀속
감독	관련내용없음(상법준용)	필요시 관계부처 장관
설립 및 영업기준 강화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500명 이상
	출자	3,000만원 이상
	출자	1인당 5만원이상, 1인 최대출자금은 전체 10%이내, 특수관계자 출자 제한
	영업지역 제한	-
비조합원 이용허용	비조합원	-
	이용허용	50% 이내 허용
		불허, 단 사회적기업인 경우 가능

<출처: 남준호(2020.8) 인용>

의료사협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여 연대사업, 의료사협 설립에 관한 컨설팅, 의료 관련 정책연구 등 개별 의료사협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3년에 의료생협연대로 창립되었다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2013년 전환 총회를 거쳐 현재의 한국의료사협연합회가 되었다. 현재 전국에 25개의 의료사협이 있으며 조합원은 약 5만 가구에 이른다. 2021년 한국의료사협연합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모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15개 팀이 선정되어 의료사협 및 의료기관 개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

<표 5>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회원조직 현황(2019.12기준)

회원 조합수 (개)	조합원 수 (세대)	출자금 (원)	활동조 합원수 (명)	건강의 관계망			매출 (원)	방문 의료 (건)	취약계 층지원 금 (원)	건강 리더 (명)
				소모임 (개)	마을모 임(개)	지역모 임(개)				
25	48,554	13,312 ,497,8 05	3,022	259	55	66	40,635 ,950,4 36	20,070	265,06 1,954	272

<출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2. 의료사협의 주요 활동

의료사협은 의료인과 지역주민이 협동하여 민주적 의료기관, 건강한 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에 맞추어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돌보기, 건강한 마을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협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6> 의료사협의 중점활동

구분	주요 활동
건강유지·증진활동	주치의사업, 다양한 건강 소모임, 건강강좌, 예방교육, 건강검진
믿을 수 있는 좋은 의료서비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가족주치의제도 실천, 만성질환자 관리 운영, 질병과 치료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권리장전 준수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총회, 각종 회의 및 지역모임 운영, 누구나 조합과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주민대상 다양한 보건예방 프로그램, 협동적 삶을 꿈꾸는 단체들과 연대, 공공적인 보건의료정책 제안
취약계층돌봄 서비스제공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 노인돌봄사업 진행, 거동불편자를 위한 방문의료, 방문간호, 가정간호사업 실시

<출처: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2021. 저자 정리>

의료사협은 의원, 한의원, 치과 등의 일차의료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과 치료과정 설명을 충분히 하고 환자권리장전을 잘 지키며, 과잉진료나 과다처방을 하지 않는 등 환자이자 조합원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25개 의료사협에 한의원 15개, 의원 15개, 치과 12개, 검진센터 9개, 재가장기요양센터 8개, 장애인 활동지원 2개, 요양원 1개, 요양병원 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요양보호사교육원, 가정간호사업소, 지역사회의료센터 등이 지역 및 조합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2021.6.10. 기준).

또한 민관협력이나 공모 등을 통해 대외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조합별로 국비,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외부공모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및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지역내 민관네트워크를 통해 건강한 지역만들기 위한 사업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의료사협의 특성이 살아있는 공익사업으로 주치의제도와 방문의료사업이 있다. 주치의제이란 지역사회, 주민 개인 또는 가족이 일차의료의사(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의료사협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방문의료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의료팀을 구성해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의료사협의 특성이 드러나는 공익사업이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웃의 안부를 이웃이 직접 묻는 건강리더나 건강반장이라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해바라기의료사협의 경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실천단 활동을 통해 대사증후군(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환자를 위한 진단기준, 유발질환, 생활습관개선, 주요 식품의 칼로리와 혈당지수 등이 자세히 기록된 건강수첩을 제작·배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임종한 외, 2015). 안산의료사협에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한 건강실천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소그룹으로 일정기간 동안 현미채식, 만보걷기 등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이다. 이외에도 지역

사회 대상 건강 캠페인 등도 진행하며 지역공동체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V. 경남산청의료사협 준비 현황 및 창업그룹 연구

1. 경남산청의료사협 창립 준비 현황

인구 4만 명이 안되는 소도시 경상남도 산청군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산청군민들과 경상남도 도민들이 힘을 모아 경남지역 최초로 경남산청의료사협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업경영지원센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하는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에 신규 의료사협 설립 8곳, 기존 의료사협의 의료기관 개설 4곳, 사회서비스 창업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산청의료사협은 여기에 선정되어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의료사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청의료사협의 창립을 돕기 위해 한국의료사협연합회에서 박준영멘토(전 원주의료사협 이사장)를 파견해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고 있다. 중간 지원조직으로는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결합해 창립을 돕고 있다.

6월 30일 창원발기인대회, 7월 19일 진주발기인대회, 8월 28일 산청발기인대회, 10월 9일 창립 총회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37명의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진행에 관한 내용은 표와 같다<표7>. 준비위원회는 산청이 중심이 되고, 인근 지역인 진주가 밀접하게 연대하고 있으며, 창원 지역모임이 결합해 있다. 준비위원회에는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 협동조합 관계자, 병원 관계자, 학자, 지역주민, 도의원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산청모임은 매주 월요일 의료사협 관련한 내용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학습회를 진행하며 창립의 핵심 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청의료사협은 아직 최종 사업장소를 확정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조건을 타진하면서 논의 중인 장소가 산청 성심원이다.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로 1959년에 한센인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졌다. 현재는 일부 시설은 한센인이, 일부는 중증장애인, 일부는 지역노인을 위한 돌봄시설로 활용 중인 복지시설이다. 이곳의 유효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계속 논의 중이다.

<표7>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원회 회의록 정리

일시 및 장소	참가자	안건	결정사항
2/18(목) 진주아이쿱 생협교육장	김명철, 김홍익, 변도희 박인자, 박보현, 신관수 이영실, 양혜련, 정원각 황재홍 (10명)	-보고 :순천, 홍성, 대전민들레의료사협 방문후기 -안전토의 ①준비위원회구성 :준비위원장- 김명철 원장 간사- 황재홍 준비위원 - 30~50명의 지역별구성	-준비위원회구성 위원장:김명철 간사:황재홍 -의료사협연합회 창업팀 지원사업에 응모

		지역책-(진주: 신관수, 창원: 정원각, 다른 지역은 추후 선정) ②의료사협연합회 창업팀 지원사업에 지원키로 하다. -차기회의 결정(3/25)	
3/25(목) 경남사회적 경제통합 지원센터 교육장	곽유영,김명철,김은영 신관수,정원각,황재홍	-안건토의 ①성심원 방문예정(4/1 또는 4/4) :이영실, 박우범 의원 함께 방문 제안 ②조합원 모집 등 지역 내 분위기 활성화 방안 모색 :목마데이 부활 :SNS(목화장터,지속가능발전산청네트워크 등) :준비위원회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하여 설명과 안내로 공감대 확장해야 :준비사항-가입신청서, 리플렛 등 제작 ③일정점검 ④명칭변경논의 ⑤준비위원회 구성 ⑥기타 논의사항 :출자금-고유번호증 통장 발급 후 조합원 모집과 함께 진행 :정관- 표준 정관을 활용 :홈페이지 운영 등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가칭) 준비위원회 출범식
4/21(수) 진주아이쿱 생협교육장	곽유영,김명철,김은영 김형태,박미영,박인자 백은숙,이영실,정원각 정유리,황재홍,허정현 박준영(멘토) (13명)	-전차회의 점검 -안건토의 ①명칭 최종확정 ②지역 발기인대회 점검 ③준비위원 모임 필요 ④준비위원회 역량 강화 필요성 -차기회의 결정(5/20)	-명칭확정: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5/20(목) 진주아이쿱 생협교육장	곽유영,김명철,김은영 노숙경,박인자,백은숙 서와,신관수,신현재 장상훈,정원각,하루 허정현,황재홍 박준영(멘토) (15명)	-특강:박준영 전원주의료사협이사장, 경남산청의료사협멘토 -전차회의 점검 -진행상황 공유 -안건토의 ①발기인대회점검 :창원발기인대회점검 ②창립일 10월 9일 성심원 확정 ③기타논의 :간사활동비, 차기회의 특강 -차기회의 결정(6/10)	-발기인대회일정확정 ①창원:6/30오후7시.창원도우누리(담당:정원각) ②진주:7/19 진주아이쿱생협,(담당:신관수) ③산청:8/28.4시 성심원성당(예정)(담당:황재홍) -간사활동비30만

			원 지급결정. 대표의 교통비등 지원
6/9(목) 진주아이쿱 생협교육장	고명정,김명철,김소형 김은영,김태진,노경환 노순자,박인자,서지은 신관수,진은주,하진호 (12명)	-특강: 김명철 준비위원장 (나는 왜 의료사협을 하려고 하는가?) -진행상황 공유 -안전토의 ①운영위원회 구성 ②정관위원회 구성 -차기회의 결정(7/8)	-운영위원회:각 지역위원을 포함해 구성 -정관위원회:대표단과 정원각센터장에게 기초안 마련 요청

2. 경남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 특성 연구

1) 혁신성(innovation)

혁신은 낡은 것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이다. 혁신성은 현재 존재하는 기술의 새로운 결합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조직 활동의 확산을 통한 내부의 창조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서비스, 과정, 혹은 조직의 산출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Schumpeter, 1947; Lumpkin & Dees, 1996). 혁신성은 모든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혁신성은 새로운 방법 혹은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거나 조직 혹은 기업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미 25개의 의료사협이 존재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의료사협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다. 기존에 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료조직이 생기는 것이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들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현재 산청군은 군의료원 1개, 요양병원 1개, 의원 13개, 치과 6개, 한의원 14개소의 의료기관이 있다.(산청보건의료원 홈페이지. 2021.6.14. 기준) 그러나 의료원 말고는 입원실 있는 병원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해 있다. 치료가 부담스러울 경우 진주로 갈 것을 권유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고 한다. 이런 의료현실이 의료사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의료를 소비하는 것도 참신한 일이다. 병원과 환자 사이가 권력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조합원이면서 조합의 이용자와 제공자가 되는 관계는 새로운 경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산청의 문제는 병원이 영리성만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오는 의사는 대부분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친절하지 않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도 않아요. 의료사협이 만들어져서 전문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믿을 수 있는 의사가 정확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생활 속에서 할 일을 무엇인지 알려주는 친절한 의사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상담을 해주는 담당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B)

의료사협은 주치의 개념을 갖고 왕진을 가는 것이 의사 일이에요. 아프기 전에 예방의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환자가 너무 많으면 서비스를 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처음에 어렵더라도 환자 개인에게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합원들이 가족의 상태에 대해서도 질문하면 충분히 설명해줘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병원이나 대체의학 등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왕진을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A)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핵심은 결국 조합원들의 참여, 그리고 같이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몇몇 간부가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조합원의 참여 속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교육도 중요한 거 같구요. (참여자 D)

산청이라는 곳은 공공의료가 거의 없는 상태고 조금만 큰 병이 나면 무조건 진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또 제가 동네 어르신들을 봤는데 병원에서는 매일 물리치료를 오라고 하는데 차편도 차비도 마땅치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의료사협을 통해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지고 가고 싶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C)

2) 위험감수성(risk-taking)

위험감수성은 사회적기업 관련 창업에 실패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감수라는 개념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대안 등을 만들어 내거나 실행시키는 과정에 기꺼이 시간, 형평성, 재정적 자원 등의 기준에 의한 인지된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Kuratko & Hodgetts, 2004).

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의료진은 핵심인물인 한의사가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온 경우로 별다른 기반 없이 개인 한의원을 운영해왔다. 지역민 수도 적고, 다른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처럼 자본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의료사협을 만든다는 것은 무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믿으며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을 피하기보다는 맞서려는 태도가 엿보인다.

산청에는 협동조합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씩 배우면서 창립까지 가려니 시간도 없고 부담도 큼니다. 병원 운영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고요.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의료사협의 틀은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자 C)

주변에서 아프면 진주로 가면 되지 뭐 때문에 이러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아프면 진주로 가는 게 당연시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거 같아요. 아이 학교 학부모나 젊은 분들을 설득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

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네요. 건강강좌 등을 열어서 참석한 사람들과는 차분히 이야기해보면서 의료사협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어렵지만 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B)

어차피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소수자라서 저는 이것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불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 이런 자본주의적인 모순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나타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약간의 저항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창조적 소수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A)

3)진취성(proactiveness)

진취성은 상대 조직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서비스 혹은 정책들을 수행하기 이전에 실행함으로써 미래에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Schumpeter, 1947; Lumskin & Dees, 1996). 사회적 기업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존의 제도적 규범 혹은 관념 등을 깨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진취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진취성을 가진 사회적기업가인 리더들은 변화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 진취성은 사회적 기업가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은 산청지역의 의료현실을 타파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산청의료사협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 만에 창립을 바라보고 있다.

작년 9월쯤에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정원각센터장을 만나서 의료사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일정과 청사진을 들려주더라구요. 그 얘기를 현재 산청준비위원 4명이 들었고, 그림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했어요. 목화장터 밴드에 올리고 사람들을 모으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런 게 어느덧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처음엔 부정적이고 막막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의료사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순천, 홍성, 대전, 시흥을 다니면서 그림이 조금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마을 살리기는 우리 현실하고 딱 맞는다고 보였어요. 제가 했던 여러 활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참여자 A)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본격적으로 사람도 만나고 조합원 모집에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습니다. 10월 창립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하지요. 조직의 정관, 규약 등도 챙기고 교육도 진행하고요. (참여자 C)

창원에서는 그전부터 의료사협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산청의료사협 이야기가 진행되고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어느덧 창립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의료사협은 사회적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산청의료사협이 잘 창립되고 경남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자 E)

4) 사회적 목적(social mission)

사회적 목적은 가장 분명하고도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적기업가들이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다. 사회적 목적에는 개인적 혹은 사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Peredo& McLean, 2006). 사회적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변혁적 성격을 가지며 일상적인 조직을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기업가 혹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의 사회적 목적은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하게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게 한다(Leadbeater, 1997).

산청의료사회협 창업그룹은 그동안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에 온 경험이 있다. 이들은 지역민과 소외계층을 돌보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곳으로 귀농을 했는데 지방에 내려오면서 의료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 가족과 나의 건강을 위해 찾아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의료사회협이 산청에서 그런 역할 해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C)

20년 전에 산청에 이사 오면서 성심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구요. 그 어르신들과 내 마지막 생을 보내야겠다 생각도 많이 했어요. 돈 안 받는 의료행위를 하고 싶었어요.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청소년 공간, 장애인 시설, 환경보호, 외국인 노동자 문제까지. 지역에서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여자 A)

의료사회협 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존재, 비밀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싶어요. 조합원 활동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챙기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산청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활동가로 살아왔던 경험을 살려 의료사회협과 산청지역 활동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참여자 B)

5) 공동체 정신(sense of community)

공동체 정신을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조직에 서로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이 함께 헌신함으로써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리라는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cMillan and Chavis, 1986: 9). 공동체 정신을 네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성원 자격, 영향력, 욕구의 충족과 통합, 그리고 정서적 유대의 공유가 그것이다.

산청의료사회협 창업그룹은 산청지역에서 함께 「목화장터」라는 지역 플리마켓, 지속가능발전

협의회등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해왔고 이것이 현재의 기반이 되고 있다. 목화장터는 7년 전부터 운영해왔는데 현재 밴드 회원이 2,700여 명에 이른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100여명 정도가 결합 되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지역민들의 결속력과 희생정신이 의료사협의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창립을 주도하는 한의사는 지역사회에 적극 관여해 왔고 오랫동안 봉사도 해온 경력으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산청의료사협을 위한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은 공동체 정신의 발현이며, 사회적기업가정신의 특성으로 보인다.

어릴 때부터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현재는 40년 전에 모였던 사람들과 마을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개인을 넘어서 좀 더 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산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제 직업도 그렇고 의료와 관련된 게 좋겠다 싶었어요. 목화장터, 농민회, 평화의 소녀상 만들 때 인연을 맺은 분들도 있고요. 군수 선거할 때 모여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만들었구요. 조기축구회, 합창단 등 많은 지역 모임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의료사협도 가능한 것입니다. (참여자 A)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산청에서 해 온 활동이 의료사협을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참여자 C)

의료사협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사람, 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과 지역사회가 모두 건강해야 하지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보고 멀리 가면 좋겠어요. (참여자 D)

저는 산청만의 의료사협을 만드는 꿈을 함께 꿀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가슴이 뛰어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좋은 경험들도 있고 하니 잘될거라고 믿어요. 정말 최고의 진짜 멋진 공동체가 될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산청학습회 참여자 G)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아파도 즐겁고 기쁠 수가 있고, 아프지 않은데도 슬프고 외롭고 아플 때가 많았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도 옆에 기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의료사협 만드는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놀라워요. 이런 공간 자체가 치유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습니다. (산청학습회 참여자 H)

VI. 결론 및 경남산청의료사협의 성공을 위한 제언

1. 결론

경남산청의료사협은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지역 사회적약자의 건강과 돌봄을 실천한다는 비전으로 출발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의 창업 지원을 받아 비전의 실현을 위한 창립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립을 준비하는 핵심 그룹을 중심으로 초기 창업그룹의 사회적기업가정신 특성을 알아보았다. 선행연구 및 인터뷰를 통해 경남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은 혁신성(innovation), 위험감수성(risk-taking), 진취성(proactiveness), 사회적 목적(social mission), 공동체 정신(sense of community)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사회적기업이 경제성을 지키면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과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정선희 조상미, 2018). 의료사협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공익적 성격,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지향성, 의료라는 전문화된 영역이 결합된 중층적인 조직이다. 의료행위를 하는 공적인 조직이면서도 의료행위 이상의 사회적 활동과 협력이 중요하다. 의료사협 창립을 준비하는 경남 산청은 지방 소도시라는 분명한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청의료사협의 창립과 지속가능 경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남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은 의료사협을 만들겠다는 굳건한 의지, 예상되는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실천하겠다는 열정, 거기에 오랜시간 동안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해온 신뢰의 경험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가고 한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사회적 목적 추구, 공동체 정신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의료사협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협 창립에 필요한 500명 발기인과 1억원 출자금 모금이 진행 중이며, 총회 및 이사회를 위한 워크숍, 발기인대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구현과 경제적 성과라는 이중적 목표를 실현하면서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리더는 혁신적이며 전략적인 리더십과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이런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경남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가정신도 창립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요인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재정적 성과', '전략과 기획', '생산성과 효율성', '투자자와 주주'와 관련된 하이브리드(상업적 논리)요인만으로는 사회적기업 성과를 창출하기 힘들고 사회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매개로 해야 가능하다. 사회적기업가정신이 하이브리드 요인과 성과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정선희 조상미, 2018).

2. 경남산청의료사협 성공을 위한 제언

경남산청의료사협 창업그룹은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가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산청의료사협의 성공적인 창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비재무요인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BSC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의료사협은 그 목적과 가치, 의료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한데, 의료사협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재무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임현목 서진선 최우석, 2018). 의료사협의 제도적 운영방침은 의료사협이 사회적 돌봄 활동을 진행할수록 재정적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정작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돌봄을 실천해 온 의료사협들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에서 적자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고 의료사협이 보건의료의 대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박해린, 2020). 사회적기업으로서 의료사협 성공은 의료사협의 목적이 시민사회 운동의 성격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사회복지 성격을 가졌을 때 조합원 규모가 확대된다. 의료사협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운동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합원의 요구와 의료사협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합치되기 때문에 조합원달성에 효과적이다(김재엽, 2017).

의료사협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약자들을 돌보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 돌봄과 의료의 주체로서 거래비용 및 정보비대칭성을 줄이며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나가는 창구로 인간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자 실천 방식이다.

산청의료사협은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복지와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소도시에서 의료사협을 시도하는 자체가 도전이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산청 지역의 특색에 맞는 목표와 비즈니스 모델로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하겠다. 현재 산청의료사협을 알리는 교육, 홍보 활동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세분화하고 확대하여 의료사협을 알리고, 조합원 및 관계자들의 인식향상에 나서야 한다. 의료사협 자체가 낯선 영역이기에 지역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외연을 넓혀나가는 것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안산의료사협 의료진으로 있는 인터뷰 참여자 F는 의료사협 운영을 위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 마인드가 중요함을 지적한다. “누가 특정한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적이고 좋은데 요양원이든 병원이든 잘 운영하려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해 조합원도 늘이고 이익을 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해요. 환자가 와서 후자를 내야 시설도 넓힐 수 있고, 다양한 지원도 가능한 거잖아요. 조합을 잘 운영하는 여러 활동과 함께 경영적인 측면도 꼭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경남산청의료사협은 경남 최초의 의료사협으로써 많은 기대와 우려를 모으고 있다. 지방 소도시의 의료사협으로 풀어가야 할 난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창조적 소수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고, 남은 생을 봉사에 마치고겠다는 의료진과 의료사협 생각 만해도 가슴이 뗌다는 준비 위원들이 있기에 창립과 성공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산청의료사협의 성공적인 창립으로 지역에 모범을 보이고, 산청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수영 (2015), 혼종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조직 내 충돌과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2(1), 345-379.
- 김수한 (2018), 창립멤버 구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노동연구, 36, 77-113.
- 김재엽 (2017), 의료사회협 성공의 원인과 과정분석: 안성·인천·안산 의료사회협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연구, 26, 1-51.
- 김태영 (2012),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정신, 도시행정학보, 25(3), 31-64.
- 남춘호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의료사회협의 역할 분석: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523-541.
- 노대명 (2007), 한국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현황과 과제: 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35-71.
- 박혜린 (2020), 보건의서비스의 대안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정안정화 방안모색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8, 81-101.
- 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5권(2), 199-227.
- 이용탁 (2009),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기업연구」, 2(2), 5-28.
- 임현목, 서진선, 최우석 (2018),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비재무요인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BSC 기법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10(2), 61-92.
- 장성희 (2012), 창업가의 특성, 환경적 특성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영연구, 27(3), 223-245.
- 장선희, 조상미 (2018), 하이브리드 요인이 사회적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1(3), 125-161.
- 조혜정, 김미리 (2020),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5(5), 157-174.
- Alter, K., (2007), Social Enterprise Typology Ch.2 'Social enterprise in context' 13-22.
- Austin, J., Stevenson, H., & Wei-Skillern, J. (2006),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1):1-22.
- McMillan and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Dees, J. G. (1998a), Enterprising Nonprofits, Harvard Business Review, 76(1): 54-66.
- Dees, J. G., Economy, P., & Emerson, J. (2001), Enterprising Nonprofits; A Toolkit for Social Entrepreneurs, New York: John Wiley and Son.
- Defourny, J. & Nyssens, M.(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Social Enterprise Journal, 4(3), 202-228.
- Kuratko, D. F. & Hodgetts, R. M. (2004),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Practice. Mason, Western College Publishers.
- Leadbeater, C. (1997), The Rise of the Social Entrepreneur. London: Demos Complex Relationships

-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takeholder Support,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9, 1132-1150.
- Lumpkin, G. T., & Dess, G. 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Prabhu, G. N. (1998), Social Entrepreneurial Management, *Leadership in Management*, www.mcb.co.uk/services/conferenc/sept98/lim/paper_a2.ht
- Peredo, A. M. & McLean, M. (2006), Social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4), 56-65.
- Roberts, D., & Woods, C. (2005), Changing the world on a shoestring: The concept of social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Auckland Business Review*, 7(1), 45-51.
- Schumpeter, J. A. (1947), The Creative Response in Economic Histor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2), 149-159.
- Schumpeter, J. A. (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ition, New York: Harper and Row.
- Sullivan Mort, G., Weerawardena, J. & Carnegie, K. (2003), Social Entrepreneurship: Toward Conceptu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8(1), 76-88.
- Voss, Z. G., Voss, G. B., & Moorman, C. (2005),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takeholder Support,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39, 1132-1150.
- Weerawardena, J. and Sullivan Mort, G., (2006), Investigation Social Entrepreneurship: a Multidimensional Model,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21-35.

논문접수일 : 2021년 2월 15일
심사완료일 : 2022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2년 2월 18일